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12.27(금) ~ 2025.1.2(목)

제공일시 2025 1 1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12.27(금) ~ 2025.1.2(목)

제공일시 2025 1 1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美, '차세대 배터리' 선점 야심... 나트륨·플로우 개발 지원

- 미국이 나트륨이온 배터리, 플로우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해 에너지 안보를 갖추고, 산업 혁신을 주도해 일자리 창출도 유도하겠다는 목표임
- 일렉티브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는 차세대 배터리 국내 제조를 위한 재료, 공정, 기계 및 장비의 발전을 위해 11개 프로젝트에 2천500만달러(약 370억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함
- 차세대 배터리 지원 대상에는 나트륨이온 배터리, 플로우 배터리, 나노 필름 등이 포함됨

[\(지디넷코리아 2024.12.29\)](#)

2. 日, 원전 주변 진출 기업에 혜택... "재가동·지역 활성화 대책"

- 원자력발전 확대를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주변에 진출하는 기업과 공장에 전기요금과 세금을 줄여줄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함
- 경제산업성은 인공지능(AI)·로봇 기술 활용, 대규모 반도체 공장 등 고용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정할 계획임
- 아울러, 탈탄소 관련 전기를 사용한다는 계약 등을 전력회사와 맺을 것도 요구할 예정임
- 일본 정부는 이러한 방침을 탈탄소와 관계된 산업 정책 전략인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2040 비전'에 담기로 함

[\(연합뉴스 2024.12.26\)](#)

3. 베이징, 자율주행 기술 육성 규제 발표... 로보택시 로보버스 허용 전망

- 중국 베이징시는 31일(현지시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통과시켰으며, 장기적으로는 운전자가 없는 공공버스와 택시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 국영 매체인 베이징일보는 이 새로운 규제가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도로 테스트와 안전 평가를 통과한 자율주행 차량은 도로 시험 주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함
- 중국 중부 우한시도 전날 자율주행 연결 차량(Intelligent Connected Vehicles)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승인했다고 발표함

[\(한국경제TV 2025.1.1\)](#)

국내 정책

1. 정부, 배출권거래제 개편...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상향

- 정부가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 배출권거래제 개편에 나섬. 또, 배출권 유상할당에 따른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임
- 정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을 심의·확정함
- 우선, 배출권거래제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함.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함
- 아울러, 배출권거래제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분류체계를 개편함. 배출권 시장의 금융시장화도 도모함

[\(연합인포맥스 2024.12.31\)](#)

2. 김소영 “지속가능금융, 비가역적 흐름”... 당국, 내년 상반기 공시 기준 발표

-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함
- 금융위원회는 30일 ‘지속가능성 공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지속가능성 공시의 추진일정과 지원방안을 논의함.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회계기준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함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내년 상반기엔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경감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우리나라 도입일정도 발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힘
- 금융위는 상반기 안에 공시기준과 함께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임

[\(비즈니스워치 2024.12.30\)](#)

3.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고영향·생성 AI 사전 고지 의무 부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 AI 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됨. 정부는 하위법령·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임
- 제정안에 따르면, AI 사업자는 ‘고영향 AI’를 이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투명성과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또, 생성 AI를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해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AI 시스템’으로 규정하며, 고영향 AI처럼 규제 대상에 포함함

[\(시타임스 2024.12.26\)](#)

글로벌 기업

1. 테슬라 '중 메가팩토리' 완공 임박... 미국 밖 첫 ESS 전용공장

- 전기차 조립공장 기가팩토리3가 있는 중국 상하이에서 테슬라가 건설 중인 '메가팩토리'가 착공 7개월 만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메가팩토리는 테슬라의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인 '메가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시설로, 연간 최대 1만 개의 메가팩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여짐
-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완공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스롭에 있는 1호 메가팩토리에 이은 2호 공장이 됨

[\(글로벌이코노믹 2024.12.27\)](#)

2. 일본 인덱스, 인도네시아 지열발전 사업 확대 추진

- 일본의 종합 에너지기업 인덱스(Inpex)가 인도네시아의 지열발전 사업을 대폭 확대함
- 인덱스는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 서부 무아라라보(Muara Laboh) 지열발전소의 발전용량을 현재의 두 배인 170 메가와트(MW)로 늘릴 계획이라고 27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함
- 이번 사업은 스미토모상사와 현지 기업들이 공동 투자하는 형태로 진행됨.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수백억 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함

[\(글로벌이코노믹 2024.12.29\)](#)

3. 제타바이트-폭스콘, 에너지 효율 높은 AI 데이터센터 만든다

- 제타바이트는 흥하이 테크놀로지 그룹(Hon Hai Technology Group, 이하 폭스콘)과의 전략적 협력을 발표함
- 자본 투자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번 협력의 목표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AI 솔루션의 혁신을 촉진하고 그 채택을 확대하는 것임. 제타바이트와의 협력은 지속 가능한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폭스콘의 의지에 부합함

[\(헬로티 2024.12.31\)](#)

4. 샤오미 EV, 니오·샤오핑·리오토와 '충전 동맹'

- 중국 샤오미의 전기차 부문인 샤오미 EV가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중국의 주요 전기차 브랜드인 니오, 샤오핑, 리오토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함
- 25일(현지시각) 중국 전기차 전문매체 CNEV포스트에 따르면, 샤오미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협력을 통해 샤오미 전기를 모는 소비자들은 세 브랜드의 광범위한 충전 네트워크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힘
- 이들 기업의 전기차 충전 동맹 구축으로 브랜드 간 '충전 네트워크 공유'라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제시된 것으로 평가됨

[\(글로벌이코노믹 2024.12.26\)](#)

국내 기업

1. 현대모비스, 스텔란티스에 PHEV 배터리 시스템 첫 공급

- 현대모비스가 세계 4위 자동차 그룹 스텔란티스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배터리 시스템(BSA)을 처음 공급함
- BSA는 배터리팩에 전장품을 합친 배터리 완제품으로, PHEV 성능과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임
- 현대모비스는 2022년 스텔란티스로부터 북미용 PHEV로 신형 BSA를 수주해 제품 공급을 준비해옴. 현대모비스는 스텔란티스와 제품 개발·성능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완제품을 공급하게 됨
-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주요 완성차에 BSA 제품 공급을 확대함. 폭스바겐에 전동화 BSA를 공급할 계획임

[\(전자신문 2025.1.1\)](#)

2. SK넥실리스, EU 보조금 1950억원... K-배터리 소재사 최초

- SKC의 동박 사업 투자사 넥실리스가 폴란드 정부로부터 유럽연합(EU)의 그린딜 정책 일환인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 보조금 1950억원(5억4500만즈워티)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
- 이로써 SK넥실리스는 EU의 TCTF 보조금을 수령한 최초의 한국 배터리 소재사이자, 폴란드 정부가 지급하는 단일 투자 기준 최대 규모의 현금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됨
- SK넥실리스와 폴란드 정부는 이번 보조금을 통해 폴란드 동부 스탈로바 볼라에 건설 중인 공장 기반의 산학 협력과 연구개발 등 중장기 파트너십 강화에 협력하기로 함

[\(뉴시스 2024.12.26\)](#)

3. 삼성SDI, 말레이시아 배터리 공장 부지 추가 매입... 불황 속 투자 지속

- 삼성SDI가 말레이시아 배터리 공장 부지 확대에 나섬. '전기차 보릿고개'에도 불구하고 국내 배터리 3사 중 유일하게 투자를 지속하며 미래 시장 회복에 대비함
- 27일 말레이시아 법무법인 '아즈미&어소시에이츠(Azmi&Associates)'에 따르면, 삼성SDI는 최근 NS세미컨덕터밸리(NSSV)로부터 스름반에 위치한 부지를 매입함. 거래가는 1억8500만링깃(약 607억원)임

[\(더구루 2024.12.27\)](#)

4. 포스코인터, 방글라데시에 '850억 LNG 현물 공급'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다량의 액화천연가스(LNG)를 방글라데시에 수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짐
- 지난 28일 외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정부는 긴급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692억9900만타카(약 853억원) 규모의 LNG를 수입하기로 함. 계약에 따라 1카고 분량을 공급함. LNG 64000톤에 해당함

[\(KPI뉴스 2024.12.27\)](#)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12.27(금) ~ 2025.1.2(목)

제공일시 2025 1 1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욕주, 화석연료 기업에 매년 30억달러 기후복구 비용 부과 법안 서명

- 뉴욕주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량 대부분을 차지한 화석연료 기업들에게 기후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음

-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26일(현지시간) 이 법안에 서명하며 “향후 25년 동안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복구와 적응 비용을 화석연료 회사들에 부담시키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및 더힐 등 현지매체가 보도했음

- 새로운 기후법에 따라, 뉴욕주는 향후 25년 동안 매년 약 30억달러(약 4조4000억원)를 화석연료 기업에게 거둬들이며, 부과되는 벌금은 총 750억달러(약 1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 로이터에 따르면, 이 법은 기후 변화로 발생한 막대한 비용을 개인 납세자 대신 주요 석유, 가스, 석탄 기업들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로 인해 확보된 자금은 도로, 교통, 상하수도 시스템, 건물 등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

- 화석연료 기업들은 2000년에서 2018년 사이 대기 중으로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게 됨. 2028년부터 납부가 시작되는 이 벌금은 뉴욕 환경보전국(NYDEC)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10억 톤 이상 배출했다고 판단한 모든 기업에 적용됨

- 법안을 공동 발의한 리즈 크루거 뉴욕 상원의원은 “뉴욕은 기후 위기의 책임을 기업들에게 묻는 세계적 선례를 만들었다”며 “지난 10년간 법원은 기후책임 문제를 입법부가 결정해야 한다며 석유 및 가스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기각해왔는데, 뉴욕주의회는 이 초대를 받아들였으며 화석연료산업이 기후오염에 대한 책임에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번 법안은 과거 독성 폐기물을 청소하기 위해 오염 유발 기업들에게 비용을 부담시켰던 주 및 연방 슈퍼펀드(Superfund Law) 법률을 모델로 삼았음. 슈퍼펀드법은 환경오염의 책임이 있는 기업들에게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해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타인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실은 열차 탈선사건 이후 발동되기도 했음

- 앞서 버몬트주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뉴욕주는 이를 이어받아 두 번째로 이러한 법안을 도입한 주가 되었음

- 뉴욕 상원은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와 피해를 복구하고 적응하는 데만 2050년까지 약 5000억달러(약 734조원)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음. 크루거 의원은 주요 정유사들이 2021년 1월 이후 1조달러(약 1400조원) 이상의 이익을 기록했음에도 화석연료가 기후 변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수십 년간 알고도 방치했다고 지적했음

- 에너지 회사들은 이번 법이 기존 연방법에 의해 규제받는 에너지 산업에 중복 규제를 가한다며 법적 이익을 제기할 것으로 보임. 미국석유협회(API)는 이번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임. API 대변인은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은 미국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징벌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음

- 뉴욕과 버몬트의 법안이 법적 도전을 견뎌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특히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가 친 화석연료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연방 차원에서 이러한 법안의 실행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음

- 캘리포니아 역시 이달 초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2035년까지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계획에 승인을 받았지만, 트럼프 신임 행정부가 이 정책에 법적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뉴욕주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선례를 남길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번 법이 다른 주와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임팩트온 2024.12.27\)](#)